

상장사다리 기업 '구인·구직 면접의 날' 개최

전북도, 홍보·우수인재 면접·채용까지 윈스톱 종합 지원 온라인 채용사이트 '워크넷·사람인' 사전접수 진행중

전북도가 오는 18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에서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구인·구직 면접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사)캡티브중합기술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며, 구직자와 도 성장사다리기업 간의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채용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따라 1단계(중소기업) → 2단계(중대기업) → 3단계(선도기업) → 4단계(

타기업) → 5단계(글로벌강소기업)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구인·구직 면접의 날'은 성장사다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홍보에서부터 면접, 채용까지 윈스톱으로 추진, 기업의 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에스엠 등 9개 기업이 구인기업으로 참여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면접이 가능한 기업은 (주)에스엠, (주)라, (주)핑코리

야 (주)임지스프링 등 4개사이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접수하고, 향후 별도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은 (주)에스앤피 (주)다남플 (유)도원산업기계 (주)우남기공 (주)성현 등 총 5개사이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온라인 채용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과 사람인(www.sarain.co.kr)을 통해 이력서 사전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력서 접수 후 구직자별 면접시간 사전 조율을 통해 행사 참여자 간 접촉 및 행사장 인구 밀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에 접수하지 못한 구직자들

위해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행사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기업과 매칭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지역 일자리 유관 기관에서는 행사장 내 취업상담관을 운영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력서 컨설팅 및 진로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업은 좋은 인재, 구직자는 좋은 기업을 찾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전북도 성장사다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마당놀이터 조성

가족단위 방문객에 전래놀이 즐길 수 있는 마당 놀이터 제공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무장애놀이터, 운전연습소, 잔디광장 등 야외 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깥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당놀이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단체 및 가족단위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체험관 및 잔디마당 주변 보도에 사방치기, 달팽이놀이, 기차놀이, 8자놀이, 신발단지기 등 도안을 그려 전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래놀이 도안은 전북도 자원봉사자 센터의 도움을 받아 벽화 봉

사단체 '그리다' 팀과 연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제작했다.

체험관에 그려진 전래놀이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모두가 아이가 참여해 놀 수 있으며,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들로 제작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양귀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잊혀져가는 전래놀이를 통해 활동적인 바깥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도록 마당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신원식도 정무부지사, 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부지 현장방문

"전북 유학자산의 스마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행정력 집중할 것"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0일 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 및 도동서원 발굴 현장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신 부지사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도동서원 발굴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는 지난 2020년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도비가 각 50억원이다.

건축규모는 2,458㎡이며, 부지는 7,296㎡로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73번지 일원이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정지는 1537년(중종29년)에 창건된 도동서원 옛터로 지포 김구, 김여수 등 7명을 배향했던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하이 동쪽으로

진래됐다(道東)는 의미로 가진 서원으로, 1868년(고종5년)에 훼손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도동서원 1차 발굴 조사를 했으며, 사당지 건물터의 초석과 적심, 기단, 유물 등이 확인됐다.

올 2월 도동서원 2차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구를, 적심 초석 등을 확인했고, 건물지에 대한 정확한 형태와 규모,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3차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수많은 문인 학자를 배출한 전북은 많은 한국학 자료가 산재되어 있기에 현시점에서 채록되지 않은 소멸될 위기에 있다"며 "이에 전라유학 문화유산 공유, 활용, 확산을 위해 유학자산의 스마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도민고충처리위 자체 역량강화 실시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개요 및 운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북도 고충민원의 시각에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했다.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가·부,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하지 말고 고충민원 해결 위한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상혁 도민고충처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거듭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깊은 시간이 돼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울산광역시 우수사례 발표 등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우리 위원회가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중재·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여름철 피해 대비하세요"

정부가보험료의 70%~91%까지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인하 등 추가 혜택

전북도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 복구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에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 2021년의 경우 풍수해를 입은

도민 127명이 총 6억1천6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수해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

주택 기준 풍수해보험 평균 자부담은 연 8천 원으로 저렴한 편인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또한, 각 시·군 별로 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91%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등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과 같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 대비 더 높은 87%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4월 개정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1.2%에서 0.8%로

인하하고, 신용보증 한도를 85%에서 90%로 상향하는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국내 6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김영원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이 오기 전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 대상 법률교육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전북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바우처기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미래 아카데미 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복미래 아카데미'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역량강화교육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번 법률교육은 신설 또는 개정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

성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으로 3회 진행됐다. 강사로는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문컨설턴트인 최명진 노무사, 목형준 노무사, 서지영 변호사가 각각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6월에는 법정 의무교육, 회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정보·수강 신청방법은 전북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or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민과 원우를 위한 특강 및 축제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에 유명강사를 초청해 도민을 위한 스피치 무료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인들과 같이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사 박인욱
명지대학교 교수 역임
국내유명 여성강사 1호



대회본부장 김경욱
전담교수
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대회장 손영엽
군산대 스피치과정 원우회장
서광수출포럼(주) 대표이사

- 일시 : 2022년 5월 14일 (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남문 앞)
- 주최 :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 주관 :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전화 : 285-6676,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